

『탐라순력도』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인식

김태호

I. 서론

II. 『탐라순력도』의 제작 배경과 구성

III.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제주도의 지형경관

IV.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선인들의 지형인식

V. 결론

국문요약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은 순력행차와 공적 행사를 소재로 하여 『탐라순력도』를 제작하였다. 41개 장면으로 구성된 도첩은 탐승 장면뿐 아니라 3읍 9진에서 행사 장면에서도 다양한 지형을 경관요소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탐라십경도』에 못지않은 제주지형 모음집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지형경관은 화산지형, 동굴지형, 하천지형, 풍화지형, 해안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라산과 오름에 대한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화산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순력일정에 한라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백록담과 영실 등 한라산을 상징하는 지형경관은 수록되지 않았다. 용암동굴이 처음으로 주경관으로 등장하여 두려우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지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수공간이 부족한 제주도의 지역성 때문에 서귀포의 세 폭포가 모두 수록된 반면 용연 이외의 소는 주요 지형경관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현무암질 용암류의 파식대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가 넓게 발달한 제주도의 해안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비쳐진 데다가 수려한 경관의 해석에도 접근의 어려움과 조망의 제약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지형경관에 대한 시대적 평가기준의 차이 때문에 해안사구와 습지 등 생태학적 측면의 지형은 도첩에 등장하지 못했다. 『탐라순력도』는 여정이 정해진 순력행차를 토대로 제작된 데다가 제작자의 경험론적 현실인식 때문에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장면을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의 지형경관에 대한 현지인과 외지인의 시점이 화첩 속에 투사되어 있으므로 선인들의 지형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주제어 : 지형경관, 지형인식, 이형상, 탐라순력도, 실경산수화, 제주도.

I. 서론

17세기 말 제주목사 이익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을 십경¹⁾으로 집경하고 『탐라십경도』라고 명명한 화첩을 제작하였다. 진성(鎭城)을 주경관으로 다룬 4개 장면을 제외하면 이익태의 화첩은 전부 지형경관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 관방 장면에서도 다양한 지형이 경관요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탐라십경도』는 제주도의 지형경관을 엄선하여 수록한 대표지형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²⁾

제주도의 지형경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지오파크로 연이어 등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들 지형경관은 제4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의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그림 1).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경관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거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변방지역인데다 접근도 어려운 섬이었으므로 이들 지형경관은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이익태도 제주도에는 뛰어

1) 이익태는 조천관, 별방소, 서귀소, 명월소 등 관방 네 곳과 성산,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취병담 등 명승지 여섯 곳으로 십경을 구성하였다.

2) 김태호, 「탐라십경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1, 2014, 149-164.

난 지형경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육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³⁾



그림 1. 제주도의 지형

상: 한라산과 오름, 서귀포 해식애와 정방폭포, 외도천

하: 우도 동안경굴, 물장울오름 화구호, 아흔아홉골 남근석

이익태의 화첩은 후임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작한 『탐라순력도』의 주요 장면으로 대부분 수록되었다.⁴⁾ 순력도의 장면 편집에는 이형상의 개인적인 취향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방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하여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순력행차를 계기로 화첩이 제작된 배경을 고려한다면, 당시 제주지역에서 승경으로 지명도가 높았던 지형경관이 포함되도록 화첩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형경관에 대한 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탐라순력도』가 지닌 가치는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탐라순력도』에서 주요 경관요소로 등장하는 지형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선인들이 갖고 있던 제주도의 지형경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강창룡,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 『제주문화예술재단』 13, 2004, 5.

4) 김현지, 「17세기 조선의 실경산수화 연구」, 『미술사연구』 18, 2004, 31-68; 이보라,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 2007, 69-91; 노재현·신병철·한상엽,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37, 2009, 91-104.

II. 『탐라순력도』의 제작 배경과 구성

1. 『탐라순력도』의 제작 배경

순선(巡宣) 또는 순도(巡道)라고도 부르는 순력은 관내 고을의 풍속과 민생을 직접 시찰했던 조선시대 관찰사의 업무를 가리킨다. 변방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하면 관찰사의 치소(治所)를 따로 설치하지도 않았고, 임지에 가족의 동행도 허락하지 않았을 만큼 관찰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관할지역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감독하였다. 즉, 관내의 군사와 행정을 지휘·통제하고, 각 고을의 수령들을 감찰하기 위한 순력은 임금을 대신하는 지방장관으로서 관찰사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했다.’는 『문헌비고』의 기록으로도 관찰사의 업무 가운데 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나 관찰사의 순력행차에는 수백 명의 인원이 수행했고, 100여 마리의 마필이 동원되는 등 규모가 방대했기 때문에 그 폐해도 적지 않아 조선 후기에 는 봄과 가을 두 차례의 행차로 축소되었다.

제주도는 전라도관찰사의 관할지역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도 쉽지 않은 섬이므로 관찰사가 직접 행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제주도로 부임하는 제주목사가 제주목을 비롯하여 정의현과 대정현 등 제주도내 3읍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순력업무도 맡았다. 『탐라순력도』를 제작한 이형상은 1701년 11월 제주목사 겸 제주진 병마수군절제사로 임명되어 1702년 3월 제주도에 부임했으며, 15개월 후인 1703년 5월 목사직에서 파직되어 제주도를 떠났다. 이형상은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에 걸쳐 한 차례 순력을 실시했으며, 이 가을 순력행차가 『탐라순력도』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고려 말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이 국내에 소개된 후 송도팔경을 비롯하여 조선 초 한양팔경 등 거주지역의 승경을 팔경 또는 십경으로 집경하고, 이들 승경을 소재로 시문을 짓고 명승도를 그리는 관습

5)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이 시작되었다.⁶⁾ 명승도 제작은 특히 조선 중기부터 거주지역에 대한 정체성 자각을 기반으로 크게 유행했는데, 17세기 후반에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관료들의 환유문화⁷⁾와 결합하여 주로 변방지역에서 다양한 명승도가 제작되었다.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려진 관북명승도의 원형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함흥십경도』는 1674년 함경도관찰사 남구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남구만은 그 제작배경을 관외의 산천에 마음과 눈을 응장하게 만들고 원대한 생각을 부칠 만한 곳이 있는데도, 땅이 황폐하고 궁벽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적으므로 널리 알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⁸⁾ 이처럼 변방지역의 명승도 제작에는 단순한 감상과 기록을 넘어 지역에 소개하는 승경을 찾아내어 알림으로써 그 지역을 주목받게 하려는 행정적인 의도가 들어 있었다.⁹⁾

따라서 지방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순력행차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사례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들 순력도는 장대한 행렬의 모습뿐 아니라 순력 중에 실시한 행사나 탐방한 명승까지 공적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17세기에 관동부사가 관할지를 순력한 후 제작한 『관동팔경도』, 『관동십경도』를 비롯하여 1695년 이익태의 『탐라십경도』, 1703년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1742년 정선의 『연강임술첩』 등이 지방관의 순력을 계기로 만들어진 기록화들이다.¹⁰⁾

6) 김동필·이기철·靑木陽二,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 1997, 49-57.

7) 환유(宦遊)는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공무로 지방을 방문한 관리가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의 명승을 둘러보던 조선시대 관료의 유희를 가리킨다. 환유문화는 특히 18세기 이후 문인사회의 관습으로 정착했으며, 지역별 명승의 형성과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박정애, 2013, 63).

8) 박은순, 「조선 후기 관료문화와 진경산수화: 소론계 관료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7, 2013, 92-93.

9) 이수미, 「함흥내외십경도에 보이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구도」,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 57-58; 박정애, 「조선 후반기 관북명승도 연구 -남구만계 계열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8, 2013, 62-63.

10) 박은순, 「19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와 지방문화」, 『한국고지도연구』 1, 2009, 31-61.

2. 『탐라순력도』의 구성

현재 제주시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652-6호 『탐라순력도』는 41면의 그림과 2면의 서문 등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56.9cm, 세로 36.4cm로 당시 제작되었던 화첩들보다 다소 큰 편이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 실시된 이형상 목사의 가을 순력행차와 순력 전후에 치러진 각종 공적 행사를 주요 내용으로 1703년 5월 13일 완성되었다.

도첩에 수록된 41면의 그림 가운데 행사 장면이 39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2면은 남해 보길도 상공에서 부감시로 그린 제주도 북부의 모습과 회화식 군현지도 형식으로 표현한 제주도 전도의 모습으로 각각 호연금서 및 한라장축이라고 명명하였다. 행사도는 28면의 순력행차 장면과 11면의 순력의 행사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력 행사도는 도첩의 10면부터 37면까지 배치했으며, 순력의 행사도는 2면부터 9면까지 그리고 38면부터 40면까지 순력 행사도 앞뒤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순력 행사도 앞쪽에 배치한 장면들은 왕실의 권위와 체제 유지에 관련된 공적 행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 뒤쪽에 배치한 장면들은 이형상 목사의 치적을 보여주고 있어 도첩 편집에서도 제작자의 정치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¹¹⁾

순력 행사도는 군사점검, 시험·시사, 양로, 배전 등 3읍과 9진에서 실시된 공적 행사 모습뿐 아니라 순력 여정에서 경유하게 되는 명승지를 탐방하는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 즉, 제주목을 출발하여 시계방향으로 순회한 순력일정을 따라 김녕굴,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왕자구지, 산방산에서 이루어진 6개의 탐승 장면을 각각 김녕관굴, 정방탐승, 천연사후, 현폭사후, 고원방고, 산방배작으로 명명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순력의 행사도에도 성산일출봉과 용연을 주경관으로 구성하여 성산관일, 병담범주로 명명한 명승도를 포함하고 있다.

『탐라순력도』는 공적 기록화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회화식지도, 실경 산수화, 민화 등 다양한 회화 요소를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작품으로 평

11) 윤만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 2011, 45-50.

가받고 있다.¹²⁾ 읍성 행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면이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회화식지도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산과 경물을 준법보다는 선과 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명승 장면은 입체감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지라도 조선 중기 이후 유행한 실경산수화의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탐라순력도』의 41개 장면 가운데 실경산수화의 요소가 잘 드러나는 탐승 행사도 7장면¹³⁾과 명승도는 아닐지라도 화면 구성에 지형이 중요한 경관요소로 사용된 9장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후자의 9장면에 등장하는 행사는 조천, 교래, 하도, 우도, 서귀, 고산, 명월, 한림, 제주에서 치러졌으며, 각 장면은 조천조점, 산장구마, 우도점마, 서귀조점, 차귀점부, 명월조점, 비양방륙, 제주조점으로 명명되었다. 분석한 주요 장면들의 소재지는 <그림 2>와 같다.

『탐라순력도』를 제작한 제주목사 이형상은 국방과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실학자일 뿐 아니라 근기남인(近畿南人) 서화가 그룹¹⁴⁾과도 긴밀하게 교류했는데,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제주도 박물관 『남환박물관(南宦博物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용적이면서도 박물관적 성격의 글과 그림을 많이 남기고 있다. 『남환박물관』과 짝을 이루는 『탐라순력도』도 지리지 성격의 화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각 장면마다 위치, 인구, 행사 참여인원 등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형상은 『탐라순력도』의 서문에서 도첩의 행사 장면들을 화공 김남길이 그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남길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인물로 제주목 소속 화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목에 소속된 회화 또는

12) 이보라, 앞의 글, 80-85; 윤민용, 앞의 글, 50-57; 박은순, 앞의 글, 99-101.

13) 고원방고는 명승도로 분류되는 장면이지만, 그림에 지형경관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과원과 주변 식생이 주 경관요소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4) 근기남인은 퇴계학을 이어받아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던 근기 일대에 거주하는 남인 계열의 성호학파(星湖學派)를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 서화 취미를 매개로 대를 이어 교류했던 이하진, 이서, 이만부, 윤두서, 윤덕희 등을 근기남인 서화가 그룹으로 명명하고 있다(차미에, 2011, 112). 이들은 예술의 효용론을 중시하여 개인적인 흥취를 기록한 기행문보다는 지리지 성격의 기행문과 지도 등을 남겼다(윤민용, 2011, 45).



그림 2. 『탐라순력도』에서 지형이 주요 경관요소로 사용된 장면의 소재지

- 1.조천(조천조점) 2.교래(산장구마) 3.김녕(김녕관굴)
- 4.하도(별방조점) 5.우도(우도점마) 6.성산(성산관일)
- 7.서귀(정방탐승·서귀조점·천연사후) 8.중문(현폭사후)
- 9.사계(산방배작) 10.고산(차귀점부) 11.명월(명월조점)
- 12.한림(비양방록) 13.제주(병담범주·제주조점)

지도 담당 화공으로 김남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화사의 가능성이 크며, 『탐라순력도』의 화공 분석에 따르면 일반 회화보다는 지도 제작에 숙달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Ⅲ.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제주도의 지형경관

1. 화산체와 화구

『탐라순력도』의 장면 대부분에서 다양한 모습의 화산지형이 경관요소로 등장한다. 분석한 16장면 가운데 천연사후나 현폭사후와 같이 특정 장소를 확대기법으로 그린 사례를 제외하면 화산체는 모든 화면의 주요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화면에 화산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교래 일대의 목마장에서 말을 몰아넣어 마필 수를 확인하는 모습을 그

15) 윤민용, 앞의 글, 54-57.

린 산장구마로서, 화면 상단의 성널오름을 배경으로 화면 전면에 걸쳐 27개의 오름을 배치하고 있다(그림 3). 또한 제주시 해안을 그린 병담범주, 제주조점 그리고 건포배은에서도 배경에 한라산과 한라산 북사면의 오름군이 등장하는데,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오름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20여개에 달한다.

중산간지역과 한라산 산록에 분포하는 오름들은 대부분 스트롬볼리식 분화로 만들어진 분석구로서, 별방조점의 화면 상단에 대랑수악(大朗秀岳)으로 표기하여 배치한 다랑쉬오름이 가장 모식적인 분석구로 알려져 있다.¹⁶⁾ 비고 227m, 기저직경 1,013m, 둘레 3,391m¹⁷⁾의 다랑쉬오름은 화산체를 등고선으로 표현하면 동심원군으로 그려질 만큼 완전한 원추체이다(그림 3). 경사각 28.4°의 직선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분석구 사면은 애추의 속성을 지니므로 사면경사각은 스코리아 즉 송이의 안식각을 반영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다랑쉬오름 산정에는 기저 직경 1/4 크기의 화구가 발달한다. 화구는 비교적 빠르게 침식되므로 모든 분석구에 화구가 출현하지는 않지만, 비양방록의 비양봉, 산장구마의 성널오름, 병담범주의 어승생오름에는 산정화구가 잘 그려져 있다. 또한 각 장면에서 산정화구를 지닌 분석구는 산정을 파이게 표현한 반면 그렇지 않은 분석구는 산정을 뾰족하게 그려 화구의 유무를 그림에 반영하고 있다(그림 3).

화산체가 주경관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성산관일과 산방배작으로서, 화면 중앙에 각각 성산일출봉과 산방산을 크게 그려 넣고 있다. 성산관일의 성산일출봉은 비고 174m, 기저직경 693m, 둘레 2,927m로 산정에는 최대직경 450m의 화구가 발달하며, 아흔아홉봉으로 불리는 기암이 왕관처럼 화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그림 4).¹⁸⁾ 사면경사각이 45°에 달하는 성산일출봉은 하이드로볼케이노의 일종인 응회구로 약 5,000년 전 얽은 해저에서 분화가 발생하면서 해수면 위로 드러난 쉬르케이형 화산체이다.¹⁹⁾ 성산일출봉은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되었다. 성

16) 김태호, 「제주도의 화산지형과 보전」, 『자연보존』 114, 2001, 3.

17) 제주도, 『제주의 오름』, 1997, 291.

18) 제주도, 위의 글, 391.

19) Sohn, Y., Park, J., Khim, B., Park, K. and Koh, G., "Stratigraphy,



그림 3. 산장구마의 오름군과 다량쉬오름

산관일 화면 하단과 우도점마에 동두(東頭)로 표기되어 있는 우도의 소머리오름도 성산일출봉과 동일한 유형의 화산체이므로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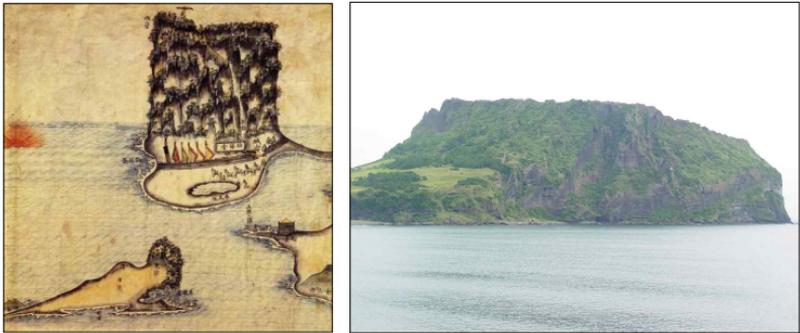


그림 4. 성산관일의 성산일출봉

산방배작의 산방산은 약 80만 년 전²⁰⁾에 분출한 조면암질 용암으로 만들어진 단성화산체로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석구와는 구성물

petrochemistry and Quaternary depositional record of Songaksan tuff ring,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119, 2002, 1-20.

20) 이문원·원종관·이동영·박계현·김문섭, 「제주도 남사면 화산암류의 화산층서 및 암석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30, 1994, 523-525.

질과 형태가 크게 다르다(그림 5). 비고 345m, 기저직경 1,314m, 둘레 3,780m²¹⁾로 산록은 볼록사면 그리고 기저부는 직선의 애추사면으로 구성되어 용암돔의 모식적인 형태를 잘 보여준다. 화산체 남사면에는 폭 2m, 높이 100m의 주상절리가 발달하며, 암벽에는 다양한 모양의 타포니가 벌집구조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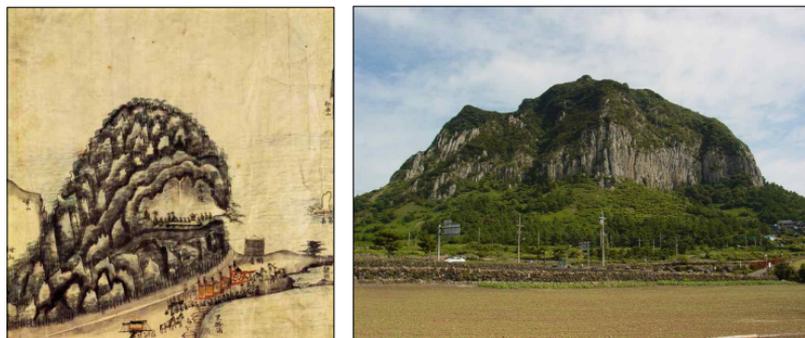


그림 5. 산방배작의 산방산

2. 용암동굴과 해식동굴

김녕관굴을 비롯하여 산방배작, 차귀점부, 명월조점 등 4장면에서 동굴지형이 등장하며, 성산관일과 우도점마에서는 동굴명만 표기되어 있다. 장면 제목에 동굴이 들어 있는 김녕관굴에서는 김녕굴과 만장굴이 주경관으로 등장하는데, 화면 중앙으로부터 우측 상단까지 3개의 동굴이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다(그림 6좌). 길이 705m의 김녕굴은 용암동굴로는 국내 최초로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본래 만장굴과 같은 동굴계에 속했으나 동굴 천장이 붕괴되면서 만장굴과 분리되었다. 제주도 동부 용암동굴지대를 대표하는 길이 7,416m의 만장굴은 1970년 김녕굴에 편입되는 형태로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었다. 1967년부터 표고 84m에 위치하는 두 번째 입구로부터 1km 구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동굴 내부는 최대 높이와 폭이 각각 23m, 18m에 달할 만

21) 제주도, 앞의 글, 440.

크 규모가 크고, 용암선반, 용암종유, 용암석주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발달한다.²²⁾



그림 6. 김녕관굴의 김녕굴(좌)과 명월조점의 배령굴(우)

명월조점에서 명월진 배후에 배령굴로 표기된 용암동굴이 1개 등장한다(그림 6우). 명월진 일대는 명월·상명리 동굴지대, 협재리 동굴지대, 금릉·월령리 동굴지대 등 용암동굴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명월·상명리에는 생쟁이왓굴, 자구내거리굴 등 7개, 협재리에는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 등 8개의 용암동굴이 분포하고 있다.²³⁾ 『탐라순력도』에 앞서 제작된 『탐라십경도』의 기문(記文)에서 중유석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길이 99m의 협재굴이나 인접한 길이 394m의 쌍용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동굴 지상에는 패사로 구성된 사구지대가 분포하므로 카르스트 현상에 의해 탄산염 성분의 동굴생성물이 내부에 발달함으로써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차귀점부에는 저생문(這生門)으로 표기한 3개의 해식동굴이 등장하는데, 모두 당산봉 화산체의 서사면에 발달하고 있다. 당산봉은 미립질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볼케이노이므로 바다 쪽 사면은 파랑의 침식을 받아 해식애가 발달하며, 해식애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차별침식

22) 김범훈·김태호,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 2007, 611-612.

23) 손인석, 『제주도의 천연동굴』, 나우출판사, 2005, 46-48.

으로 단애면에 동굴들이 만들어졌다(그림 7). 저생문은 저승문 또는 저승굴이라고 부른다. 성산관일과 우도점마에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어룡굴(魚龍窟)도 하이드로볼케이노인 소머리오름의 남사면에 만들어진 해식동굴이다. 높이 11m, 폭 8m, 깊이 113m의 대형 동굴로 동안경굴이라고 부르는데(그림 1하), 소머리오름의 또 다른 해식동굴인 달그린안을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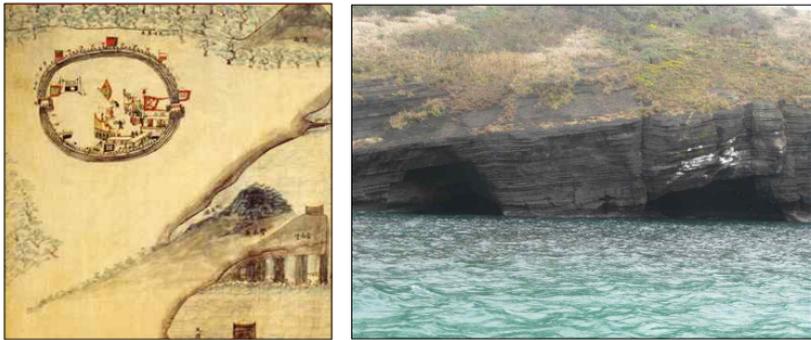


그림 7. 차귀점부의 저승굴

3. 폭포와 소

폭포와 소는 5장면에 등장하는데, 천연사후와 현폭사후의 2장면에서는 폭포와 폭호를 주경관으로 삼아 근경으로 표현한 반면 정방탐승, 서귀조점 및 병담범주에서는 해안과 하천을 중심으로 폭포와 소에 가까운 하구를 경관요소로 다루고 있다. 천연사후에서는 근경으로 서귀조점에서는 원경으로 그려진 천지연폭포는 연외천 최하류에 발달한 높이 22m, 폭 15.4m의 폭포이다. 높이 8m 지점을 경계로 폭포벽 상하부의 구성물질이 다르며, 조면안산암질 상부가 자갈층으로 구성된 하부보다 앞으로 더 튀어나온 기저부 연암형 폭포이다.²⁵⁾ 폭포 앞에는 천지연으로 불리

24) 오창명, 『18세기 초 제주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2014, 242.

25) 김태호, 「용암류 특성에 의한 제주도 폭포의 유형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

는 폭호가 등장하는 반면 바다로 물이 직접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진 정방담승의 정방폭포에는 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방폭포도 천지연폭포와 동일한 유형의 폭포로 높이는 23m, 폭은 10.5m이다.

현폭사후에 등장하는 중문의 천제연폭포는 길이 480m에 고도차가 27m인 중문천 하류 구간에 발달한 3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상류의 두 폭포가 2단폭포처럼 그려져 있으나 실제 두 폭포는 13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림과 달리 상폭에는 평소 낙숫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8). 그림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나 폭포벽이 드러나는 조면안산암질 제1폭포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현폭사후 장면에서는 폭포 중간에 소를 배치하여 폭포를 상폭과 하폭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1폭포 앞에 발달한 최대직경 33m의 타원형 소가 오늘날 천제연으로 불리는 폭포이다. 제1폭포에 낙숫물은 없으나 폭포벽 밑의 용천대에서 물이 흘러나오므로 천제연 폭포는 비교적 많은 수량을 보인다.



그림 8. 현폭사후의 천제연폭포

한편, 병담범주, 서귀조점, 비양방록 등의 장면에서는 한천, 병문천, 산지천, 화북천, 천미천, 연외천 및 금성천 등 7개의 지방하천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하류에서 용천대를 통과하는 유로길이 9km의 연외천만이 상시하천이므로 하도에 유수를 표현하고 있다. 나머지 하천들은 최하류에서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므로 두 개의 선으로 하천의 위치만 표시하고 도로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 건포배은에서는

화북천과 산지천을 동일 수계의 분기하천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두 하천은 별개의 유역을 지닌 하천이다.

유로길이 16km의 한천은 제주읍성을 그린 모든 장면에서 등장하는 제주를 대표하는 하천이다. 급경사의 한라산 북사면을 흘러내리며 하방침식으로 협곡을 만들고, 마식작용으로 매끄러운 암반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이다. 그러나 한천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병담범주 장면에서도 산지하천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최하류에 유수가 있는 것처럼 채색함으로써 실상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그림 9). 한천 하구에 발달한 높이 15m의 협곡지대는 하상의 용천수와 섞인 해수로 채워져 있어 유수가 출현하는 계곡경관을 만들기 때문에 취병담, 용연, 용소 등을 뜻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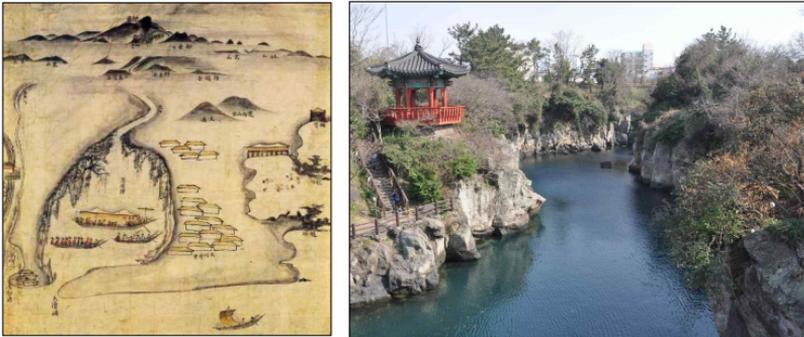


그림 9. 병담범주의 용연계곡

4. 토르와 타포니

제주도의 대표적인 풍화지형으로 한라산 영실의 오백나한과 백록담 서벽의 기암군을 들 수 있는데, 한라산의 조면암 분포지역에서는 주상절리를 따라 진행된 풍화작용과 매스무브먼트에 의해 탐처럼 돌출한 각진 토르가 잘 발달한다(그림 1하). 그러나 순력일정에 한라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백나한을 비롯하여 한라산의 풍화지형은 『탐라순력도』에 등장하지 않는다.

성산관일에 그려진 성산일출봉의 모습은 산정과 사면이 기암으로 덮

여 있다(그림 4). 산정의 아흔아홉봉과 사면에 발달한 등경돌, 곰바위, 조개바위 등은 한라산의 오백나한처럼 용암류의 주상절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립질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투수성이 낮은 하이드로볼 케이트 사면에 발생한 지표류가 화산체를 개석하는 과정에서 염풍화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토르이다(그림 10좌).

산방배작의 산방산 사면도 기암으로 덮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그림 5). 조면암질 용암돌인 산방산은 염풍화에 의해 벌집구조의 타포니가 사면에 발달하고 있으나 주상절리의 차별침식은 활발하지 않아 토르의 발달은 탁월하지 않다. 따라서 산방산의 기암은 토르보다는 암벽의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조면암질 용암돌인 쇠섬도 정방담승 장면에서 산정이 기암군으로 이루어진 화산체로 그려져 있으나 역시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성산일출봉의 곰바위(좌)와 산방산의 산방굴(우)

한편, 산방배작의 화면 중앙에 크게 그려 넣은 산방굴은 산방산 남사면 표고 145m 지점에 발달한 길이 10m, 높이 5m, 폭 5m의 풍화혈 지형이다(그림 10우). 산방굴은 과거 해식동굴로 해석됨으로써 제주도 용기의 증거로 여겨졌다.²⁶⁾ 그러나 산방굴 주변의 산방산 암벽에는 벌집구조의 타포니가 잘 발달하며, 타포니 바닥에는 벽면에서 박리된 것으로 보이는 입상물질이 쌓여 있고 벽면에도 입상물질이 붙어 있는 등 현재도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염풍화를 받기

26) 이문원·손인석, 「제주화산도의 용기지형과 구조운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논문집』 17, 1984, 225.

쉬운 조면암질 용암에 발달한 대형 타포니로 보인다.

5. 파식대와 해식애

주요 읍성과 진성이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회화식지도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면에 해안선이 그려져 있다. 해안선은 현무암질 용암류를 반영하여 대체로 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바다로 돌출한 헤드랜드에는 날카로운 톱날 모양의 파랑을 그려 넣어 침식작용이 활발한 암석해안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초천조점에서는 파호이호이 용암류로 이루어진 제주도 암석해안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용암류의 미기복을 반영하여 해안선의 굴곡이 매우 복잡하고, 해안 부근에는 여(磯)라고 표기한 투물러스(tumulus)의 암반이 도처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 있다(그림 11좌).



그림 11. 초천조점의 암석해안(좌)과 제주 해안의 용두암(우)

그러나 전체적으로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장소를 제외하면 해안지형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서귀포 칠십리해안은 비고 20~30m의 수직에 가까운 해식애로 이루어져 있지만(그림 1상), 서귀조점뿐 아니라 정방탐승 장면에서도 해식애는 고도감이 없는 단순한 선으로 그려져 있다. 해식애는 차귀점부의 당산봉 해안에서 겨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의 해식애도 동굴을 표현할 암벽의 필요성 때문에 그려 넣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양방록과 병담범주 장면의 해안에는 용두암이 등장하는데,

특히 병담범주에서는 용 모습으로 주경관인 취병담에 버금가는 큰 경물로 묘사되어 있다. 용두암은 용암수로(lava channel)의 벽면이 파랑의 침식을 받아 용머리처럼 만들어진 암괴지형으로 두껍게 흐른 아아 용암류로 만들어져 높이가 10m에 이른다(그림 11우). 용두암 주변에는 파식으로 제거되어 단편만 남은 용암벽 지형들이 바다 쪽으로 뻗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장면에는 용두암이 2개의 경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9). 산방배작 장면에서도 용머리 화산체가 용두암과 동일한 양식으로 그려져 있지만(그림 5), 비고 43m, 기저직경 535m, 둘레 1,597m²⁷⁾의 하이드로볼케이노인 용머리는 그 규모가 용두암과는 크게 다르다.

IV.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선인들의 지형인식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의 순력행차와 순력의 행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읍성과 진성에 치러진 행사 광경을 그린 장면이 화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순력 중에 경유한 명승지의 지형뿐 아니라 읍성과 진성 인근의 지형을 화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경관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에 버금가는 제주도의 대표지형 모음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태의 화첩에는 백록담과 오백나한 등 한라산의 지형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이형상의 화첩에는 해안 및 중산간지역에 분포하는 지형이 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모든 지형을 포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소재의 한계는 남구만이 소론계 사상의 특징인 경험론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장소를 십경도에서 배제했던 것처럼 이형상도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경관만을 대상으로 순력도를 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지형경관은 화산지형, 동굴지형, 하천지형, 풍화지형, 해안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은 화산지형의 화산체로 성산관일과 산방배작에서는 성산일출봉과 산방산이 주경관으로 등장하며, 28개의 분석구가 그려진 산장구마를

27) 제주도, 앞의 글, 446.

비롯하여 제주조점과 병담범주 등 제주읍성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그 배경으로 한라산과 더불어 20여개의 단성화산이 등장한다. 또한 성산관 일과 산방배작에서도 주경관 주변에 소머리오름, 식산봉, 군산, 송악산 등이 보이며, 비양방록과 명월조점에서는 비양봉과 망오름이 중요한 경관요소로 그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별방조점, 대정조점 등의 장면에서도 진성의 배경으로 인근에 소재하는 다랑쉬오름과 단산 등의 오름을 배치함으로써 화면의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

제4기의 분화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에는 다양한 화산지형이 발달한다. 섬 중앙의 한라산은 플라이스토세 전기인 12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화산활동과 더불어 성장한 화산체로서 복성화산에 해당한다. 반면에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는 단성화산으로서 한라산의 측화산을 이루고 있다. 오름으로 불리는 단성화산의 수는 334개²⁸⁾, 357개²⁹⁾ 또는 368개³⁰⁾ 등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흔히 ‘오름의 왕국’으로 비유되는 제주도의 지형경관으로서 이들 화산체의 존재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도라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주봉 한라산과 이를 감싸고 있는 오름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형경관으로 제주주민의 의식 속에 원형(原型) 경관으로 자리하고 있다(그림 1상). 중앙의 백록담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오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1709년 간행된 탐라지도병서의 제주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화산지형은 제주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화산체를 본 적이 없던 이형상에게 오름은 매우 생소하며 잊기 어려운 지형경관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림을 그린 김남길에게도 화산지형은 제주도의 원형 경관으로서 화면 구성에 불가결한 요소였을 것이다. 이런 제작자들의 지형인식 때문에 『탐라순력도』에는 두 개의 주경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경관으로 오름들이 표현되고 있다.

화산체가 지상에 발달한 화산지형이라면 용암동굴은 지하에 만들어진 화산지형이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171개의 천연동굴 가운데 용암동굴은

28) 長谷中利昭·李文遠·谷口宏充·北風嵐·宮本毅·藤卷宏和, 『韓國濟州單成火山群の火山カタログ』, 『東北アジア研究』 2, 1998, 66.

29) 박승필, 「제주도 측화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30, 1985, 161.

30) 제주도, 앞의 글, 33.

136개로 전체 동굴의 80%를 차지한다.³¹⁾ 다수의 용암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이들 용암동굴은 지형 특성에 근거하여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유동적인 현무암질 용암류의 분출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용암동굴로 김녕굴을 비롯하여 만장굴, 빌레못굴, 소천굴, 수산굴이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해안 인근에 위치한 용암동굴 가운데 동굴 지상의 패사 퇴적물이 용해되어 흘러들어와 동굴 내부가 석회동굴과 같이 스펬레오템으로 장식된 경우로 황금굴, 협재굴, 쌍용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이 해당한다.³²⁾

제주도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용암동굴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그 명칭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익태가 제주도의 승경을 최초로 집경하면서 탐라십경 가운데 용암동굴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용암동굴은 지형경관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화산체와 달리 용암동굴은 지하에 발달하므로 지표경관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석회동굴과 달리 내부에 2차생성물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상적이지 못하다. 조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과거의 용암동굴은 어둠의 세계였을 뿐 아니라 김녕굴에 얽힌 뱀 설화³³⁾ 같은 음습한 이미지도 가세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등 용암동굴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주도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탐라순력도』에는 김녕관굴 장면에서 김녕굴과 만장굴이 처음으로 주경관으로 등장하는데, 두 개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지하세계를 탐방하는 모습을 통하여 비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클지라도 충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지형임을 보여주고 있다.³⁴⁾ 더욱이 『탐라십경도』의 명월소에 이어 명월조점에서도 용암동굴이 그려진 것을 보아 한림 해안지대의 용암동굴은 이미 유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⁵⁾ 특히 명

31) 손인석, 앞의 글, 41.

32) 김범훈·김태호, 앞의 글, 611-613.

33) 김녕굴에는 풍우를 일으켜 농사를 방해하고 주민에게 재앙을 퍼붓는 뱀에 관한 설화가 깃들여 있다(최열, 2013, 53-57; 오창명, 2014, 277-281).

34) 오창명, 앞의 글, 277-281.

월소 기문에서는 카르스트 현상을 암시하는 종유석을 언급하고 있어 석회동굴의 경관을 지닌 용암동굴이라는 제주도 용암동굴의 지형 특성은 당시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규모가 큰 해식동굴은 우도, 범섬, 마라도 등 제주 본섬보다는 부속섬의 해식에 발달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탐방하기는 쉽지 않았다. 주로 뱃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존재가 알려졌을 이들 해식동굴은 어룡굴, 저승굴 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신비의 장소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용암동굴에 못지않게 제주도의 해안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어려움과 조망점의 제약 때문에 『탐라순력도』에는 차귀점부의 저승굴을 제외하면 이름만 표기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김홍도의 금강폭포와 정선의 박연폭포 같이 조선시대 산수화에도 많은 사례가 있듯이 폭포는 형태적 특이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기가 높았던 하천지형일 뿐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폭포는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³⁵⁾ 그러나 제주도의 현무암질 유역에서는 지표유출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강수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른다(그림 1상). 따라서 용암류 경계면을 따라 진행되는 굴식작용으로 제주도의 하천에는 경사급변점이 잘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폭포벽에 낙숫물이 출현하지 않으므로 폭포지형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는다.³⁷⁾

이런 제주도의 지역성으로 인하여 서귀포 해안지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는 상시하천과 이들 하천에 걸쳐 있는 폭포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지인의 눈길을 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 결과 정방담승, 천연사후,

35) 협재·금릉 일대의 용암동굴은 조선 성종대(1469~1494)부터 주목을 받았다(鹿島·徐, 1984, 24).

36) Hudson, B. J., "Waterfalls resources fo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 1998, 958-973.

37) 김태호, 앞의 글, 129-130; 서귀포시 서쪽을 흐르는 악근내 표고 240m 지점에 발달한 영포폭포도 평소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낙차가 가장 큰 폭포로 높이 약 50m에 달하는 폭포벽에 우천 시 폭포수가 출현하면 장관을 이룬다. 최근 올레 코스에도 포함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제주도의 비경 가운데 하나로 낙수현상의 희소성 때문에 '신비의 폭포', '행운의 폭포'로 알려져 있다.

현폭사후에는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등 제주도의 대표적인 세 폭포가 모두 주경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형경관에서 폭포가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환경부 I등급지형³⁸⁾으로 평가될 만큼 이들 폭포의 지형학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친수공간이 부족한 제주도의 지역성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하천의 친수공간으로서 폭포와 더불어 친숙한 소는 병담범주의 용연을 제외하면 정방탐승의 정방연, 천연사후의 천지연 그리고 현폭사후의 천제연 등 폭포 앞에 출현하는 폭포에 국한되어 있다. 제주도에 도 효돈천의 남내소, 도순천의 냇길이소 등 수려한 소가 다수 발달한다. 그러나 이들 소는 모두 건천 구간에 놓여 있으므로 탁족(濯足)을 즐기는 한반도식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은데다 접근의 어려움도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³⁹⁾

한라산의 병풍바위를 비롯하여 백록담 서벽, 산방산, 범섬 등 조면암질 용암의 암벽에는 주상절리가 잘 나타난다. 절리는 차별적인 풍화침식을 받기 쉬우므로 주상절리를 따라 암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토르가 발달하기 쉽다. 그러나 박리돔, 성곽형 토르 등 대규모 풍화지형이 발달하는 한반도의 화강암산지에 비해 조면암지역에 편재하는 제주도의 풍화지형은 규모도 작고 다양성도 떨어진다. 성상관일과 산방배작의 화산체 사면에도 토르와 주상절리가 형상화되어 있으나 제주도의 대표적인 풍화지형인 영실기암 즉 한라산 오백나한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한라산을 신비롭게 만드는 영실 오백나한은 독특한 그 형상 때문에 한라산을 오르는 탐방객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데, 김상헌은 부처들이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여 천불봉이라고 불렀고 이익태는 성벽모양의 기암군을 금강산에 비유하였다.⁴⁰⁾ 한반도의 화강암산지와 같

38) 환경부, 『제2·3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12년도 보고서』, 2013.

39) 한천의 방선문(訪仙門)은 영주십경 가운데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진달래꽃과 철쭉꽃이 만발하는 봄에는 제주목사가 매년 행차하여 풍류를 즐기는 등 오래전부터 선비와 문인들이 즐겨 찾았던 경승지이다. 그러나 방선문은 아치형 바위를 비롯한 기암들이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루어 수려한 경관을 지어내는 협곡 구간으로 소와 반석(磐石)이 계류와 어우러진 한반도식 친수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0)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물지리』, 도서출판 각, 2006, 106-112.

은 석산경관을 체험하기 어려운 제주도에서 주상절리와 토르가 어우러진 영실의 지형경관은 한라산 순상화산체의 등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장소적 특성 때문에 『탐라십경도』에서는 두 장면에 영실기암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형상 목사의 순력일정에는 한라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주도의 지형경관으로서 영실기암이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격한 경관이 아닌 탓에 화첩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호연금서를 포함하여 21개 장면에서 제주도의 해안선이 그려져 있지만, 주목할 만한 해안지형은 병담범주와 비양방목의 용두암, 산장배작의 용머리 그리고 차귀점부의 당산봉 해식에 정도에 불과하다. 제주도 해안의 75%를 차지하는 암석해안은 용암류의 유형에 따라 지형경관이 크게 달라지는데, 유동적인 현무암질 용암류는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기울어 지거나 평탄한 지형면으로 이루어진 해안을 만든다. 특히 동·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는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파식대가 탁월하게 발달한 평활한 지형경관을 만든다.⁴¹⁾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단조로운 해안은 이런 제주도의 현무암질 암석해안의 특성이 투사된 결과로서, 용두암이나 용머리 같은 기암이나 화산체를 제외하면 제주도의 암석해안은 대부분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암석해안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질해안은 제주도 해안의 7.1%인 21.9km에 불과하다.⁴²⁾ 하천에 의한 토사 공급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함덕, 협재, 광지, 김녕, 중문 등의 사빈은 길이가 짧고 암반 노출로 연속성도 떨어지는 포켓비치이다. 모래가 바다로부터 공급되므로 사빈 퇴적물에서 패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로 높는데, 김녕해수욕장의 퇴적물은 98%가 석회질로 구성된 전형적인 패사사빈이다.⁴³⁾ 사빈도 『탐라순력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이익태의 화첩 속 기문에서 협재와 금릉의 사빈이 언급되고 있어 당시에 사빈은 특이한 지형경관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안의 경관미는 사질해안보다 파랑의 침식작용이 탁월한

41)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1998, 384.

42) 김태호, 위의 글, 384.

43) 한태홍,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 1998, 73-87.

암석해안에서 우세한데, 제주도의 해안경승지도 서귀포 칠십리해안을 비롯하여 남원 큰엉, 중문 지삿개, 마라도 등 해식애가 발달한 암석해안에 위치한다. 그러나 차귀점부의 당산봉 해안에서와 같이 해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식애가 펼쳐진 지형경관을 볼 수도 없으므로 수려한 해식애가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승경으로 인식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익태의 화첩에도 해식애는 주경관으로 등장하지 않고, 『탐라순력도』의 정방탐승에서도 서귀포의 해식애는 단순하게 해안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물영아리오름습지, 물장울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동백동산습지 및 숨은물뱅터 등 전부 5개의 습지가 환경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동백동산습지는 최근 지오파크 사이트로도 등재되어 많은 탐방객이 찾는 등 제주도의 습지 지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본래 제주도의 화산성 지질 특성은 표면지류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지표면에 습지가 발달하기 어렵지만, 지형적으로 집수에 유리한 장소에서는 습지가 출현할 수 있다.⁴⁴⁾ 특히 화구는 집수에 유리한 대표적인 장소로서, 한라산 정상을 비롯하여 물장울오름, 물찻오름, 어승생오름, 사라오름, 동수악 등 한라산 산록에 분포하는 오름 화구에 다수의 습지가 출현한다(그림 1하). 또 다른 장소로는 오름에 둘러싸인 와지 형태의 완사면이나 평탄면으로서, 배수에 불리한 지형조건 때문에 습지가 발달하기 쉽다. 한라산 산록의 1100고지습지, 만세동산습지, 숨은물뱅터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

또한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분포하는 제주어로 빌레라고 부르는 평활한 장소에서도 용암류 표면의 불투수성과 투물러스, 프렛서리지(pressure ridge) 등 용암류 표면의 미기복이 결합하여 소규모 습지가 출현한다. 동백동산의 먼물깎과 반못 등 빌레와 꽃자왈에 발달한 습지는 과거 중산간지역의 중요한 용수원으로 활용되었다.⁴⁵⁾ 그러나 이들 습지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형일지라도 화첩에 담아낼 만한 경관요소로서는

44) 김태호, 「제주도 산지습지의 지형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6, 2009, 35-45.

45) 안중기·김태호, 「제주도 중산간지역 지표수 저류시설의 수문지형학적 접근」, 『한국지형학회지』 22, 2015, 20-22.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명이 표기된 한라산 산정의 백록담을 제외하면 산장구마의 물장올오름 화구호와 같이 그 존재를 유수(有水)로 표기한 사례는 보이나 대부분의 장면에서 습지의 모습은 배제되었다.

V. 결론

제주도의 대표경관은 영주십경 또는 영주십이경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에게 집단표상으로 전해오던 제주도 승경의 이미지는 17세기 말 제작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에 의해 비로소 외재화되었다. 이익태의 화첩을 계승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의 순력행차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순력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한라산을 장면의 주경관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순력 대상지가 제주도 해안 및 중산간 전역이므로 다양한 장소와 인물이 화첩 속에 등장하고 있고, 화첩의 장면 수도 많아 당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⁴⁶⁾ 특히 『탐라순력도』에는 명승지 탐방을 소재로 한 장면뿐 아니라 읍성과 진성에서의 행사 장면에서도 다양한 지형이 경관요소로 화면에 배치됨으로써 화첩 제작자들을 포함한 선인들의 제주도 지형경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탐라십경도』에 못지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등장하는 지형경관은 화산지형, 동굴지형, 하천지형, 풍화지형, 해안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에서 한라산 순상화산체와 주변의 오름이 만들어내는 지형경관은 제주주민의 삶에 녹아 있는 원형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화첩 속 지형경관으로 화산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을 상징하는 지형경관으로 제주주민에게 각별한 장소로 인식되었던 백록담과 영실기암은 순력일정에 포함되지 못한 탓에 화첩

46)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윤일이,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 2007, 113-120; 장현주·이주영, 「조선 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관원 복식」, 『복식』 57, 2007, 108-123; 오창명, 앞의 글.

에서는 제외되었다. 제주도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탐라십경도』에서 부수적인 경관요소로만 다루어졌던 용암동굴은 『탐라순력도』에서 비로소 주경관으로 등장함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지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소 물이 흐르지 않아 인상적이지 못한 제주도의 하천 가운데 서귀포 일대의 상시하천과 폭포는 희소한 친수공간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반면 한반도와는 달리 계류와 어우러지지 않는 제주도의 마른소는 중요한 지형으로는 인식되지 못했다. 또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는 제주도의 해식애는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적인 조망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더욱이 제주도 해안의 3/4을 차지하는 암석해안의 경우 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루어진 평활한 파식대가 넓게 발달함으로써 해안 대부분이 비슷한 모습으로 비쳐졌으므로 주목할 만한 지형경관으로는 인식되기 어려웠다.

사질해안을 구성하는 사빈과 사구는 경관요소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진 지형인 내륙습지도 순력일정에서 빠진 한라산의 백록담을 제외하면 화첩에 등장하지 않는다. 지형경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무분별하게 훼손되던 해안사구와 습지는 생태학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보호 대상 지형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경관미 이외에는 탐승지로서 지형의 판단기준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지형이 화첩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부득이했을 것이다.

『탐라순력도』는 여정이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순력행차를 바탕으로 제작된 데다가 제작자가 경험론적 현실인식을 중시하는 소론계 사상의 소유자로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장소는 장면 구성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재 선택에는 분명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형경관에 대한 제주주민과 외지인의 시점이 화첩 속에 고스란히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선인들의 지형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창룡,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 『삶과 문화』 13, 2004.
- 김동필·이기철·靑木陽二,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 1997.
- 김범훈·김태호, 「제주도 용암동굴의 보존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 2007.
-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1998.
- _____, 「제주도의 화산지형과 보전」, 『자연보존』 114, 2001.
- _____, 「제주도 산지습지의 지형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6, 2009.
- _____, 「용암류 특성에 의한 제주도 폭포의 유형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 2012.
- _____, 「탐라십경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1, 2014.
- 김현지, 「17세기 조선의 실경산수화 연구」, 『미술사연구』 18, 2004.
- 노재현·신병철·한상엽,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37, 2009.
- 박승필, 「제주도 측화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30, 1985.
- 박은순, 「19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와 지방문화」, 『한국고지도연구』 1, 2009.
- _____, 「조선 후기 관료문화와 진경산수화: 소론계 관료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7, 2013.
- 박정애, 「조선 후반기 관북명승도 연구 -남구만제 계열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8, 2013.
- 손인석, 『제주도의 천연동굴』, 나우출판사, 2005.
- 안중기·김태호, 「제주도 중산간지역 지표수 저류시설의 수문지형학적 접근」, 『한국지형학회지』 22, 2015.
- 오창명, 『18세기 초 제주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2014.
-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 2011.
- 윤일이,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 2007.

- 이문원·손인석, 「제주화산도의 용기지형과 구조운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논문집』 17, 1984.
- 이문원·원종관·이동영·박계현·김문섭, 「제주도 남사면 화산암류의 화산층서 및 암석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30, 1994.
- 이보라,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 2007.
- 이수미, 「함흥내외십경도에 보이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구도」,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
- 장현주·이주영, 「조선 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관원 복식」, 『복식』 57, 2007.
- 제주도, 『제주의 오름』, 1997.
-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 도서출판 각, 2006.
-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 차미애, 「근기남인 서화가 그룹의 계보와 예술 활동 -17C 말, 18C 초 윤두서, 이서, 이만부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1, 2011.
- 최 열, 『옛 그림 따라 걷는 제주길』, 서해문집, 2011.
- 한태홍,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 1998.
- 환경부, 『제2·3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12년도 보고서』, 2013.
- 鹿島愛彦·徐茂松, 「大韓民國濟州島の偽鐘乳洞, 挾才洞穴群」, 『日本洞窟學會誌』 9, 1984.
- 長谷中利昭·李文遠·谷口宏充·北風嵐·宮本毅·藤卷宏和, 「韓國濟州單成火山群の火山カタログ」, 『東北アジア研究』 2, 1998.
- Hudson, B. J., "Waterfalls resources fo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 1998.
- Sohn, Y. K., Park, J. B., Khim, B. K., Park, K. H. and Koh, G. W., "Stratigraphy, petrochemistry and Quaternary depositional record of Songaksan tuff ring,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119, 2002.
-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Abstract

Geomorphological Perception Projected on
Landforms in *Tamrasunryeokdo*

Kim, Tae-Ho*

Abstract : Lee Hyeongsang, a Jeju governor, produced a picture book named *Tamrasunryeokdo* in 1703 based upon an inspection tour and official events carried out in Jeju Island. It consists of 41 paintings which exhibit topographies nearby towns and forts as well as noted geomorphic landscapes. The book could be consequently considered a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landforms in Jeju Island. Geomorphic landscapes in the paintings are classified into volcanic, cave, fluvial, weathering, and coastal landform. A volcanic edifice appears most frequently in the paintings, reflecting the particular emotion of Jeju people on Mount Halla and oreums. However, Baeknokdam and Yeongsil which symbolize Mount Halla are not shown in the book because an itinerary of the inspection tour did not include a mountain region. It seems to regard a lava tube as a frightening and intriguing landform in that a cave was firstly expressed as a major landscape. Although a pool was not highly evaluated except Yongyeon, three famous waterfalls in Seogwipo were depicted in four paintings, suggesting there are scant freshwater zones in the island. A sea cliff was not also properly appraised due to its difficult access and limited views.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standards of evaluating landforms varies with the times, so that ecologically valuable landforms such as coastal dune and wetland does not appear in the paintings. The viewpoints of outsiders as well as natives are projected on geomorphic landscapes in the paintings even though the picture book does not contain all kinds of landforms in Jeju Island. It indicates that *Tanrasunryeokdo* is a precious historical document for examining the ancestor's geomorphological perception.

Key words : landform, geomorphological perception, Lee Hyeongsang, *Tanrasunryeokdo* painting of true-view landscape, Jeju Island

교신 : 김태호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E-mail: kimtaeho@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5. 08. 30.

심사완료일 2015. 10. 12.

게재확정일 2015. 10. 17.